

##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 롬 10:14~21

지난주에 저희들은 로마서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성경구절 중의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당신이 구원을 얻기 위해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내려오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음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입 안에 있습니다. 입술 안에 있고 마음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굉장히 어렵고 멀고 힘든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이 눈을 뜨고 성경을 읽으면 구원은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쉽고 분명한 것이지만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면 됩니다.

#### 네 가지 질문

구원이 이렇게 쉽고 분명하고 간단한 것인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14, 15절에서 네 가지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먼저 14절 첫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다면 어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질문은 14절 가운데 줄에 있습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들어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믿겠는가?”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려면 최소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들어야 합니다. 소식을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셋째 질문이 14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면 누군가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메신저’라고 말합니다. 소식을 전하는 사람, 메신저가 있어야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며, 믿음이 생길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구원을 얻게 됩니다.

넷째 질문은 15절 처음 부분에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메신저가 메시지를 전한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 메신저는 스스로 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대사를 각 나라에 파송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파송을 받지 않았는데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는데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 못했는데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사람들

자, 그러면 오늘 14절과 15절에서 우리는 중요한 결론을 하나 갖게 됩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파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내는 일이 없다면 구원도 없습니다.

구원은 산에 가서 혼자 도를 닦고 깨달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길 때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최대 임무는 무엇이었습니까? 파송하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텔로(Apostelo)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뜻은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교회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가다 보면 우리 교회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기둥 밑에 교회 머릿돌이 있습니다. 그 머릿돌에 무슨 얘기가 쓰여 있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 - 예수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가 당신을 위하여 부활하셨고, 예수가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셨고, 구원받게 해 주셨고, 그 예수는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라는 소식 - 을 전하러 가는 자의 발걸음은 어떨겠습니까? 신이 날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면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얼마나 기뻐겠습니까? 발걸음이 빨라지고 전달해 주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반면에 사형장에 끌려가는 발은 어떨겠습니까? 아주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합니다. 믿으려면 들어야 합니다. 들으려면 누군가 전해야 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으려면 누군가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소식을 전하러 가는 사람의 발은 복된 발입니다. 이 얘기가 10장 15절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저는 여러분의 발이 이런 복된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이 돌멩이 차는 발이 아니라, 신경질이 나서 다른 사람의 엉덩이를 차는 발이 아니라, 죄악을 저지르는데 달려가는 발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 사용되는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원래 이사야 52장 7,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

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고 들을지어다 너의 파숫군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  
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올해에는 통일의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화해하고 여러분의 사업이 부흥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복음의 빛진 자이기에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 다른 종족에게 위험과 고통과 외로움과 가  
난함을 무릅쓰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떠나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조국을 떠나, 일  
가친척을 떠나, 사랑하는 고향을 떠나, 내 직장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모르  
는 이방인들 속으로 뛰어가신 분들이었습니다. 이 분들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거  
기에는 평신도 선교사도 있고 성직자 선교사도 있습니다.

저는 이재환 선교사님을 늘 생각합니다. 그 분의 한 편지를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발에  
고름이 나서 짜 보니 벌레가 나오더라는 이야기, 먼지가 하도 많아서 청소를 하나마나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불 속에 가만히 들어갔다 살짝 빠져 나와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이야기,  
자기 부인이 임신을 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안타까웠던 이야기 등등을 기억합니다. 왜  
그런 고생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최근에 저는 강원희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네팔에서 일하시는데 연세가 60세를 넘  
었습니다. 그분은 외과의사이신데, 그 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울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어떤 여자 환자를 수술을 하는데 수혈할 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보니까 자기  
피하고 그 여자 피가 같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피를 뽑아서 그 여자에게 수혈해 주었답니  
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국내에서도 그 분은 훌륭한 외과 의사였습니다. 돈도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선교사로 떠날 것을 결심하고 40세에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지금  
까지 20년 동안 그는 스리랑카, 네팔 등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때는 20시간을 걸어  
서, 산을 넘고 또 넘어서 환자를 1백30명인가를 돌보아 주고 또 그 10시간이 넘는 거리를  
걸고 또 걸어서 내려오기를 반복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의 발은 ‘아름답다’는 말을 붙이  
기에 합당한 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파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생활을 뒷바라지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1월 5일과 12일에 결정한 것이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에 3백불, 어떤 사람은 5백불, 어떤 곳에는 병원을 세워주고, 어떤 곳에는  
농장을 세워주고, 어학원을 세워주고, 유치원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  
금이 다 그렇게 쓰여집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돈을  
드리고 기도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 말씀은 믿음의 ‘씨’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복음을 전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을 했

지만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복음을 받아들여야 했던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을까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거부했을까요? 아니면 복음을 알아듣지 못해서 거부했을까요?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데, 저들은 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럴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18절을 보면 저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먼저 알았고 먼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십니까?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믿음을 갖는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생깁니다. 말씀은 믿음의 씨입니다. 믿음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비료도 중요하고, 햇빛도 중요하고, 공기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하지만 씨가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십일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씨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들락날락해도 씨가 없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씨’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는 나오는데 말씀을 들을 때만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만 줍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믿음이 없습니다. 씨가 있어야 자라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고 싶으시면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고, 외우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이 있어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믿음이 생기는 두 번째 비결은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돌맹이도 없어야 하고, 햇빛도 잘 내려쬐어야 하고, 비도 적당히 와야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잘 자라도록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고, 순종하고, 성경말씀대로 행동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자라기를 바랍니다. 씨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어느 교회를 보니까 성경을 자기 손으로 쓰는 운동을 하더군요. 그것도 좋은 생각 같습니다. 아무튼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말씀 듣고 하면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셔서 예배도 익숙하고, 설교도 익숙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익숙하지만, 변화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만일 땅이 굳어 있으면 불도저로 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바꾸세요.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거지같이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믿음의 씨가 새로 심겨지길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십시오. 열매를 맺으십시오.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써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써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19절에서 바울은 두 사람의 예를 듭니다. 첫째는 모세요 둘째는 이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요, 이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것이냐? 너희들이 듣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냐?”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바 되고 내게 문 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결코 이스라엘이 듣지 못해서, 몰라서 메시아를 거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메시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지, 메시아가 처녀에게 잉태 될 것도 알았습니다. 탄생 장소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교만해서, 완고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신앙생활이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게 습관이 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는 자꾸만 죄를 짓습니다.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자꾸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좋아하게 됩니다. 자기 영혼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율법도, 할례도, 약속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조상도 있었습니다. 그랬지만 그들의 마음은 강박해졌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도 강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변명을 합니다. 죄인은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는, 허물은 잘 비판하는데,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변명과 핑계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변명을 하고 핑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빨간 불이 깜빡 깜빡거리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허물을 보는 사람은 남의 허물에 대해서 야단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허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남의 허물에 대해서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이때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허물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강박함을 보는 눈이, 자기의 오만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것입니다.

##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시고 계십니까?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털 깎는 자의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인류의 모든 죄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침묵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루 종일 손을 벌리시고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 거스려 말을 하는 사람들을 참고,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막히게 부모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한 자식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눈에서 피 눈물이 흐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성인이 되어 결혼을 했습니다. 자기도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기가 낳은 자식이 과거의 자기보다 몇 배나 자기 속을 더 상하게 했습니다. 애를 때리고, 야단을 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사진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이렇게 나 때문에 속이 썩었겠지요.”

그때야 그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그렇게 속이 상한 것을 안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겠습니까? 온 종일 뒤통에서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같이 손을 벌리시고 나를 기다리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스라엘처럼 예수는 오래 믿었지만 실족하고 상처를 입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온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분께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기 허물을 보기 시작하십시오. 남의 실수를 보지 말고 자기 실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 여러분의 눈에는 손을 벌리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 기도함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알고도 강퍽해지고

불순종하고 거스려 말하는 이스라엘.

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렸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은 온 종일 손을 펴고 계셨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강퍽한 나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불순종하는 나의 마음을 녹여 주시고

거스려 말하는 나의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

<http://file.onnurityv.com>